

## 남북한 언어의 차이(4)

金 敏 洙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4. 언어 정책과 통일 의식

국어에 대한 남북 정부의 정책은 거의 다름이 없고, 다른 점은 소극과 적극의 차이로 생각된다. 오늘날 자국어에 대한 각국의 계획은 자연 생성에 맡기는 방임주의와 보호 육성을 꾀하는 간섭주의로 대별되는데, 남북의 정책은 소극적 개량 장려와 적극적 언어 개혁으로 나뉘어 간섭주의에 속한다. 간섭주의라도 단순치 않아서 이름의 로마자 표기 같은 방임주의의 일면이 있다. 또한 어학 혁명의 구호로 전개된 북한의 말다듬기가 다른 혁명과 달리 개개인에게 철저히 검정되지 않는 면도 역시 그렇다.

언어에 관한 규정은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포한 규정은 법이로되 다른 법처럼 위반자를 처벌하기 어렵다. 언어는 사회적 소유인데, 사용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혁명도 한계가 있고, 더구나 소극적 권장은 성과가 불확실하다. 가령, 해방의 감격을 배경으로 한 9백여 개의 “우리말 도로찾기”(1948)는 도시락, 단팔죽, 통조림, 튀김, 꼬치, 전골 유의 일어 잔재를 없앴다고 믿었는데, 종종 겪는 것은 일어가 불쑥 되살아 나는 불확실성이다.

요컨대, 북측의 언어 정책은 남북의 큰 차이가 없는 초기 약 20년, 김일성 주도하에 어학 혁명으로 다그친 제2기 약 20년, 김정일 집무로 계승하며 절충한

제3기의 과도기적 상반기 약 10년이 흘러 갔다. 이어서 시작된 김정일 주도하에 질층적 발전을 시도하는 제3기의 중반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남측의 국어 정책은 집권자가 명령한 제1, 제3공화국의 예가 있었으나, 대개 장관이 기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장려하는 방식이다. 남북의 권장과 개혁, 이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4.1. 규범 문법과 규범 사전

국어의 규정은 가령 미다지, 미다디, 밀장문, 미리창, 열창, 쌍다지 등 같은 대상을 달리 표현해서 빚어질 혼란을 정돈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미다지' 하나를 선정하고 '미단이'로 표기하게 지시하는 제약이다. 이 선정의 배경에는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는 전제하에 표기와 발음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ㄷ받침을 해야 하는 형태 구조, ㅅ으로 발음해야 하는 구개음화 등을 설명하는 문법이다. 이와 같이, 규정된 국어 규범에 맞추어 한 가지로 설명한 문법을 따로 규범 문법이라고 한다.

만일 위의 규정에서 '미다디'를 선정하는 배경이라면, '미단이'로 표기하더라도 규범 문법에서 구개음화 같은 설명은 없어진다. 따라서, 남북의 규범이 다른 만큼 남북의 규범 문법도 차이가 있다. 가령, 북측의 규범 '려[려]관'은 남측과 같이 두음규칙이 필요치 않고, 북측의 '깨묵'에 대한 남측의 '갯묵'에서는 사잇소리의 규칙이 필요한 것과 같다. 따라서, 남북 규범의 단일화는 동시에 규범 문법의 단일화를 뜻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목되는 남북의 규범 문법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 북한 규범 문법의 어음 부문

오늘에 와서는 글을 쓴대로 발음하게 되었으며, 단어의 첫머리에 [ㄴ]만이 아니라 [ㄹ]도 나타나게 되는 방향으로 첫소리법칙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었다(조선어학강좌 1989. 90).

##### 2) 북한 규범 문법의 형태 부문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토) 8품사. 일부 상정사를 독립품사로 설정하는 예가 있으나, 대개 상징부사로 보는 편이다. 남측과의 차이는 조사와 어미를 묶은 토를 보조적 단어, 접사 일반과 구별되는 문법적 형태조성의 교착접사라고 규정한 것이다(김용구 1989. 27, 86, 112).

단어속에서 형태부가 변종을 가질 때에는 그 변종들의 음운구성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조선어강좌 1989. 185). 용언어간의 끝소리마디의 모음이 <ㅣ, ㅐ, ㅑ, ㅓ, ㅕ> 등 앞모음일 때는 <ㅣ, ㅑ>가 온다. 어간의 끝에 자음이 있을 때는 <ㅣ>(빛어, 맺어), <ㅓ-지어>와 같이 어간 끝자음이 드나드는 말에 <ㅣ>(있다, 이어), 어간의 끝에 자음이 없을 때 <ㅑ>(비었다, 재여보다, 죄여, 쥐여...). 그러한 과도음이 굳어져서 맞춤법에 고착된것이 <ㅑ>라고 할수 있다 (“조선문화어문법” 1979. 94).

북측의 문법은 체제의 특성상 거의 규범 문법의 성격인데, 남측의 문법은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학문 문법의 성격이다. 그래도, 체계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어, 남북의 차이는 위와 같이 세부에 한한 것이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면, 남북의 문법은 대체로 통용되는 단계라고 할 것이다. 국어의 규정은 이와 같이 규범문법을 규제하는 한편, 규범 사전을 직접 통제한다. 국어 사전은 문화의 종합 창고인 동시에, 특히 규범 사전은 국어의 최고 법정과도 같아서 항상 현행 규정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 3) 북한의 언어 규범과 규범 사전

1948. 1. “조선어 신철자법”(1950. 4)→1949. 12. 조선 어문 연구회 “조선어 사전”(10만 어휘, 미간)

1954. 9. “조선어 철자법”/ 1956. 1. “외래어 표기법”(1958. 12. 수정)→1956. 2. 과학원 “조선어 소사전”/1960. 8.~62. 11. “조선말 사전” 6권

1966. 7. “조선말규범집”/1969. “외국말적기법”→1968. 9. 사회과학원 “현대조선말사전”(제1판)/1973. 5. 사회과학원 “조선문화어사전”/1981. 12. 사회과학원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1987. 5. “조선말규범집”(수정)/1982. 10. “외국말적기법”(수정)→1991. 4. 사회과학원 “한자말사전”/1992. 3. 사회과학원 “조선말대사전” 2권

요컨대, 북한의 문법은 항상 언어 규정을 전제한 규범 문법의 성격이며, 국어 사전도 마찬가지로 고비마다 규범 사전으로 편찬되었다. 남측에서는 새로운 국어규정이 갖추어져서 시행되기 시작한 1989년 3월 이후 서술된 문법에 반영되고, 새로 편찬된 국어 사전은 종전과 달리 규범 사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런데, 남북의 규범 문법은 세부의 차이가 있어도 통용 가능하며, 규범 사전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이용 가능한 내용이다. 그러면, 상치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어려운 과제로 남는다.

## 4.2. 정책 이념과 회귀 작용

우리는 광복 50주년을 지내고 다가올 남북의 언어 통합을 더욱 생각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의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거의 소홀한 느낌이다. 지금 북한의 언어 정책이 아직도 김일성 주도하의 제2기와 같은 정세라고 흔히들 말하나, 이 시대는 벌써 지나가고 김정일 주도하의 제3기 상반기도 끝난 단계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서, 지금은 제3기 중반기에 접어든 상황이다. 북한의 자료나 정보에 소홀한 탓이겠으나, 이렇게 어두운 정보를 갖고 감히 언어 통합을 논한다면 큰 착각일 것이다.

북한의 정책 이념은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하는 주체사상이다. 1955년에 시작하여 1966년에 구축한 주체사상은 공산주의 혁명사상 위에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에서 창조한 주체형의 혁명 이론을 접목시킨 것이라고 한다. 정책의 시행은 수령의 교시를 받들고 국가적으로 혁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언어에 관한 교시는 홍기문 기안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내린 교시는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이런 제2기의 극단적 민족주의의 경향은 제3기로 옮기면서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변모를 보이고 있다.

### 4) 북한 제2기(1964-83)의 정책 기초

계속 써야 할 한자어가 얼마나 되고 버릴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여 버려야 할것은 대담하게 사전에서도 빼버리는것이 좋습니다. 과학원에서 만들어낸 <<조선말사전>>에는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마치 중국의 옥편 같습니다.(김일성 1.3 교시)

우리는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 말로 고치고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고유어를 찾아쓸뿐 아니라 고유어로 새말을 만들어쓰기도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5.14 교시)

지금부터 글자개혁안을 준비하여 잘되면 고친 글자들을 학교에서 조금씩 가르치게 하는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였다가 조국이 통일되면 지금의 네모글자를 없애고 인차 새 글자를 쓸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상동)

### 5) 북한 제3기 상반기(1984-94)의 정책 기초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어, 술어, 규정어, 보어를 <<세움말, 풀이말, 엮음말, 보탬말>>로 다듬어쓰는 현상에 대하여 관습화된것은 고치지 말고, ... <<까비네트>>를 <<연구실>>이라고 고쳐쓰도록 하시고 <<아이스크림>>이란 말도 <<얼음보숭이>>라고 다듬어쓰도록 하시었다(박상훈 외 1986. 36, 38).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의 자막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쓴것은 뜻이 맞지 않으므로 《배역》이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말다듬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미 굳어진 말까지 쓸데없이 풀어쓰다보니 오히려 뜻이 모호하고 어색한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 말을 다듬어쓴다고 하여 망탕 고쳐서는 안됩니다 (최정후 1990. 61).

대사전의 올림말선정원칙과 뜻풀이원칙뿐아니라 편집방향과 인쇄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를 밝혀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에 무한히 고무되어 왕성한 투지와 신심에 넘쳐…… 이 사전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의 언어이론과 사전편찬원칙에 기초하여 만든 우리 식의 대사전이다(“조선말대사전” 1992. 머리말).

김일성의 정책과 김정일의 정책과의 차이는 제2기의 “조선문화어사전”과 제3기의 “조선말대사전”과의 비교로 집약된다. 같은 주체사상의 이념 아래에서도 마치 옥편과 같다고 비판하던 사전의 모형으로 환원한 제3기의 정책은 지양적 발전의 양상으로 변했다. 이 경향은 위 5)의 처리 결과인 다음 7)과 같은 예로 확인되며, 이미 예시한 2.2 8)-11) 등으로 보아 2만을 넘는 환원이었다. 이 사실은 앞으로 남북의 언어 통합을 다소간 더 밝게 하는 조짐으로서 기대를 갖고 주시할 부분이다.

#### 6) 제3기 상반기(1984-94)의 시책 전환

수령님의 사상과 경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자말과 외래어를 사전편찬에서 옹계 처리할데 대하여,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에 있는 한자말과 외래어는 고유어와 뜻이 같은 단어들이라고 규범사전에 다 올릴데 대하여, 혁명전통교양자료들과 혁명소설, 당보의 중요사료설, 력사소설들에 있는 한자말들도 규범사전에 올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정순기 외 1984. 19-20).

지도자동지께서는 어휘정리와 우리 말을 발전시키는데서 국어사정위원회가 노는 역할에 언제나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으며 매 시기 그 활동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박상훈. 외 1986. 33).

#### 7) 제3기 상반기(1984-94)의 처리 결과

“다듬은 말”(1986) : 가격→값→값/가격, 가동성→움직임성→가동성, 가명→가짜이름→가명, 가연성→(불) 탈성→가연성, 가해자→해친자→가해자, 각추→각뿔/각추→각뿔, 간지→끼움종이→간지/속지, 갑골문자→뿔글자→갑골문자(글자), 개산→대충셈→개산, 개화→꽃피기→개화, 객실→손님방→객실, 십진법→열올림법

→십진법, 포르테→크게→포르테

“조선말대사전”(1992) : 가가호호→집집/집집마다→가가호호, 건조→마르기/말리기→건조, 고어→옛날말→옛날말/고어, 노트→공책/학습장→노트, 램프→등→남포, 배달→디디개→배달, 아이스크림→얼음보숭이→아이스크림, 가스테라→설기과자→설기빵→카스테라, 칼렌다→달력→칼렌더, 카트→베기→카트, 프로그램→차레표/일정표→프로그램, 헤르메트→안전모자→안전모자/헬메트

요컨대, 북측 제3기의 특징은 주체사상의 계승 발전 즉 극단의 지양과 현실적 반전의 경향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그것은 김정일의 생장기인 제1기(1945-63)의 언어 규범으로의 현실화를 뜻하기도 하나, 깊이 통찰하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 오랜 전통의 영역으로 되돌아가고야 만다는 회귀 작용의 큰 흐름임이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회귀성은 소박한 민족주의에 호소하며 언어의 순결성 보존을 소극적으로 장려하는 남측의 국어 정책과의 격차를 좁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4.3. 통합 유도과 통일 원칙

북한의 언어 개혁은 단일한 그 체제로 보아 거의 정착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짙다. 일정한 과정을 거쳐 발표된 언어 자료이고, 이 자료와 비교한 남북의 언어 차이이나, 이러한 자료를 의심하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 그런데, 오늘날 어학 혁명은 힘있게 벌어지고 있으나, 사회의 언어생활은 한결같지 않다. 어느 한쪽에서는 다듬은 말을 적극 받아들여 쓰고 있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아직 본래말을 쓰고 있다. 또한 다듬은 말도 그 파악성 정도가 각이하다(정순기 외 1984, 22)는 실상이 사실이다.

북측의 언어 실태는 이런 시각에서 파악할 실태조사가 없고, 대신 1993년 “조선어빈도수사전”이 참고가 된다. 빈도수 1 이하가 없어서 유감이나, 빈도수 없는 다듬은 말을 폐기하고, 빈도수 있는 말을 양립시켰다는 대세가 보여 흥미롭다. 이보다 주목할 것은 북측의 문화어에서 다듬은 말과 격상시켜 채용한 방언으로써 북수 문화어가 조성된 사실이다. 이미 2.2에서 언급한 이 북수는 남측의 북수 표준어와 대비되는 한편, 남북의 언어 통합을 선도할 방향의 시사라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8) “조선말빈도수사전”(1993)의 실태

가격(18)→값(264)→값/가격, 가동성(4)→움직임성(0)→가동성, 가명(6)→가  
짜이름(0)→가명, 간지(1)→끼움중이(0)→간지/속지(1), 노트(7)→공책(4)/학습  
장(6)→노트, 랍프(6)→등(8)→납포(3), 베달(0)→디디개(5)→베달, 아이스크림  
(2)→얼음보숭이(0)→아이스크림, 가스테라(0)→설기과자(0)→설기빵(2)→카스  
테라(1), 칼렌다(1)→달력(5)→칼렌더(0), 캣트(0)→배기(0)→카트(2), 프로그램  
(95)→차레표(1)/일정표(0)→프로그람(위 7번 예의 빈도)

9) 북측 문화어의 동의어(1992)

간유/애기름, 교대/대거리, 구름다리/공중다리, 근시/바투보기, 금성/새별, 만  
조/참물, 암산/속셈/속구구, 그루뻘/분파, 까벨/케블, 로대/바깥대(발코니), 카텐  
/창가림, 포스터/선전화(1.3 다듬은 말)

감기/고쁠, 강남콩/당콩, 깨다/마스다, 끼니/때식, 누릉지/가마치, 내/내굴/연  
기, 들레/두리, 물부리/물주리, 사과/능금, 상추/부루, 서랍/뻬랍, 싸다/눅다, 아  
쉽다/아수하다, 아직/상기, 이내/인차(2.1, 2.2 방언)

10) 남측의 복수 표준어(1988)

가름/가물, 가엸다/가엸다, -거리다/-대다, 고깃간/푸죽간, 꼬리별/살별, 꽃뿔/  
붉뿔, 넝쿨/넝굴, 뒷감당/뒷갈망, 땅콩/호콩, -뜨리다/-트리다, 명게/우렁쟁이, 물  
부리/빨부리, 비용/비발, -세요/-셔요, 쇠고기/소고기, 신/신발, 아무튼/어떻든/  
어쨌든/하어튼/여하튼, 어저께/어제, 여쭙다/여쭙다, 여태/입때, 옥수수/강냉이,  
중매/중신(표준어 규정 18, 23, 26항)

남측의 복수 표준어와 북측의 동의어, 4위의 이런 공통적 복수안에 주목하면,  
이 복수안을 확대한 남북의 과도적 언어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단일안의  
합의가 이상적이고, 복수안은 현실적이다. 복수안은 언중의 선호로 장차 단일화  
될 것이 기대되는 과도기의 가능한 차선의 방안이다. 그러나, 맞춤법에서는 이보  
다 제3의 원칙이 요구된다. 가령, 분단 이전으로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뜻에서 조  
선어학회의 “통일안”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 관점은 어  
떨 전망을 시사하는가?

11)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기준

선택의 폭 : (1) 초판 1933. 10. (2) 고친판 1937. 5. (3) 새판 1940. 10.

사잇소리 : (1)(2) 넷가, 강가, 덧잎, 꽃잎, 호수, 권수, (3) 내사, 강사가, 대

사읻, 꽃사읻, 호수, 권수(남측) \*양지사물(월곡 105), 양짓물(구간 6:7), 잠판(석보 6:6), 값간(석보 13:53)

어미류, 접미사 : (1)-(3) 이요, 이었다, 되어, 더퍼리, 살사리, 푸서기, 누더기, 무더기, 싸라기, 일찌기(남, 북)

두음법칙 : (1)-(3) 여(녀)자, 요(뇨)도, 낙(락)원, 양(량)십, 신녀성, 열력학, 분렬(남, 북) \*녀자[여자], 락원[나권], 신녀성[시녀성], 분렬[부닐]

띄어쓰기 : (1)-(3) 먹어버리다, 보아오다, 견더내다, 하는것, 갈바, 할수, 가논이, 집 한채, 붓 두자루(북측)

자모와 자모순 : (1)-(3) ㄱ ㄴ …… ㅌ ㅍ ㅑ ㅓ (24)(남),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24)(남),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16)(북), ㅓ(기역), ㅕ(디귤), ㅑ(시읏), ㅓ(쌍기역)(남)

요컨대, 남북의 언어 통합은 복수안을 표준어의 원칙으로, 항일기의 “통일안”을 맞춤법의 원칙으로 하여 추진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맞춤법에서는 남측에 가까운 사잇소리, 24자모, 북측에 가까운 띄어쓰기, 자모순으로 나뉘고, 개별적으로 절충할 어미류, 두음법칙 같은 것도 있게 될 것이다. 국제표준기구의 한글 로마자 전자법의 단일안과 같이 남북이 주고 받으며 절충할 가능성을 믿고 싶다. 흡수 통일이 아니고, 평화 통일이 전제인데, 성급한 단일안만을 추구한다면 언어 통일은 실종되겠기 때문이다.

4.4. 통일 시대와 언어 교육

미구에 남북의 언어가 통일된다고 믿으면서도, 구체적으로 통일의 방법이나 양상을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완전한 단일안이 이루어져야 통일이 라고 보기 쉬운데, 그렇게 깨끗한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언어의 통일 시대는 상당한 과도적 통합기를 거쳐서 성숙된 통일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장은 그러한 통합기를 실현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업이며, 이 과업은 물론 어떤 원칙 아래 새로운 차원에서 창조해야 할 남북 공동의 몫이다.

그렇다고 남북의 합의만 기다리며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선 가능한 것부터 착수하여 통합기를 열 것이다. 가령, 표준어의 복수 통합은 이제라도 먼저 가르치고, 안 다음에는 자유롭게 선택케 하면서 단일안 합의에 힘쓰자는 방안이다. 단일안의 한 기준으로서 전통의 뿌리인 문헌어를 고려에 넣을 여지가 있



다. 그런데, 언중에 의한 선택은 즉 단일화의 활동이기 때문에, 복수 통합은 결국 단일화의 시작을 뜻한다. 남북에서 서로 가르칠 남북이 다른 어휘의 예를 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2) 복수 표준어 확대의 예(괄호 속 문헌어)

가공선/공중선, 루선/눈물선, 봉질/첫상영, 수경법/물가공법, 연무기/내굴분무기, 브래지어/가슴띠, 크라셔/파쇄기(2.2. 10번)

거위/계사니(거유), 귀리/귀밀(귀밀), 류성/별찌(별종), 옥수수/강냉이(옥수수), 우유/쇠젖(쇠젖), 장모/가시어머니(가시엄), 채소/남새(치소), 체/체(체)(2.2. 7번)

13) 남북 언어의 공통점

- (1) 한글 모아쓰기 (2) 글줄 가로쓰기나 내려쓰기 (3)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 (4) 형태주의 표기와 발음규칙 (5) 음운 체계와 문법 구조

통합 언어의 교육은 통일 시대를 개막하는 제1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통합기에는 어휘의 풍부화와 폭넓은 선택을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합한 과정안과 교재를 꾸미며 서둘러 방안을 숙성시킬 것이다. 그리고, 남북 언어에 대한 시각도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주시하려는 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 공통점은 오랜 전통의 저변에 확고히 뿌리박힌 민족어의 동질성으로서 항상 소중한 회귀성을 작용케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질성을 신봉하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다.

요컨대, 남북 언어의 통일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과도적 통합기를 우선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 통합기는 한 10년으로 잡으면 복수안을 교육하며 필요한 단일안 작성에 노력할 것이다. 복수안의 보급과 사용 실태의 조사는 언중의 어휘 선호 즉 단일화의 경향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은 또 장차 진입할 통일기를 예측케 하고, 통일기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선은 과도적 통합기에 있지 않고, 궁극적인 통일기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1995. 8. 2)

참 고 문 헌(계속)

- 조선어학회(1933), “한글 맞춤법 통일안” 고친판 1937, 경성: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1940),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새판, 경성:조선어학회.  
문교부(1948), “우리말 도로찾기”, 서울:조선 교학 도서 주식 회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1), “《조선말규범집》해설”, 평양:사회과학출판사.  
“조선문화어문법”(1979),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조선어학강좌(1989), “어음 및 문자론” 3판, 평양: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용구(1989), “조선어문법”, 평양:사회과학출판사.  
최정후(199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언어리론 연구”, 평양:사회과학출판사.  
문영호, 권중성, 리정용 외 6명(1993), “조선어빈도수사전”,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전호 정정:168면 1행 지레(tupe)→찌레(тире), 10행 적 성질→적성질, 16행 (1990. 1),→(1990. 1), 2면, 17행(1990. 1)→(1990. 1), 12면, 173면 26행 Korean Review→Korean Review